

구두수선공이 준 놀라운 교훈

“너의 구두 끝을 뽕족하게 만들까, 동그랗게 만들까?”

이것은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이 어렸을 때에 새구두를 맞추려고 찾아간 그에게 구두수선공이 한 질문이었다. 그때 레이건이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자 구두수선공이 다시 말했다.

“지금 결정을 할 수 없으면 며칠동안 잘 생각해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찾아오너라.”

며칠 뒤 레이건은 길에서 우연히 그 구두수선공을 만났다.

“너의 구두 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했느냐?”

“아직 결정못했습니다.”

“그렇다면 며칠 후 너의 구두를 찾으러 오너라. 너의 구두를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.”

며칠 후 레이건은 새 구두를 찾으러 갔다.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? 너무도 놀라 할 말을 잃어버렸다. 구두수선공이 내놓은 구두는 한 짝은 뽕족하고 또 한짝은 둥글게 만들어 놓은 짝짝이 구두였다.

그때 그 구두수선공이

“너는 이 구두를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을 것이다.”

하고 일러준 한 마디 말을 레이건은 때때로 회상하면서

“나는 그때 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대신 내 마음에 들도록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.”

레이건은 지도자가 지닐 지혜 한 가지를 가르쳐준 그 구두 수선공의 놀라운 재치와 유머를 늘 잊지 않고 고마워했다.